

# “바보 노무현”의 삶처럼...분열 넘어 국민통합 희망

봉하마을서 서거 12주기 추도식  
민주 지도부·대선주자 총출동

보수정당 대표 2016년 이후 첫 참석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2주기 추도식이 23일 오전 11시 경남 김해 봉하마을 대통령 묘역에서 엄수됐다.

12주기 추모 행사는 ‘열두 번째 봄, 그리움이 자라 희망이 되었습니까’를 주제로 진행됐다. 추도식에는 코로나 19 방역수칙에 따라 노 전 대통령 부인 권양숙 여사 등 유족과 김부겸 국무총리, 여야 정당 대표 등 각계 주요 인사 등 70여 명만 참석했다.

이날 김 총리는 추도사에서 “대통령의 열망과 달리 오늘날 대한민국의 불신과 갈등은 어느 때보다 깊다”며 “가난하고 어려운 이웃과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좀 더 관심을 두지 못하고, 분노하는 사람들을 좀 더 사랑하지 못한 정치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이어 “바보 노무현”의 삶처럼 분열과 갈등을 넘어 국민 통합과 사람 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희망을 놓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은 “열두 번째 봄을 맞은 오늘까지 우리는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그리움을 내일에 대한 희망으로 키워왔다”며 “열세 번째 봄은 시민들과 함께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이날 추도식 참석 후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해 “낡은 좌파 패러다임(old left paradigm)과 맞선 노 대통령의 모습을 생각해본다”면서 “잠시 오해를 받더라도 국민을 위해 누구보다 원칙에 충실했고 미래를 위한 결단을 보여주시는 분”이라고 회고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추도식 참석 후, 취재진과 만나 “아픈 역사의 현장에 다시 왔다”며 “통합의 정신이 아쉬운 요즘 노 전 대통령이 남기신 뜻을 우리의 이정표로 삼았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보수 정당의 당 대표급 인사가 노 전 대통령 추도식에 참석한 것은 2016년 새누리당 원내대표였던 정진석 당시 대표 대행 이후 5년 만이다.

민주당 대권주자 ‘빅3’인 이재명 경기도지사, 이낙연 전 대표, 정세균 전 총리도 이날 일제히 노 전 대통령을 추모했다. 이 전 대표와 정 전 총리는 전

직 총리 자격으로 나란히 추도식에 참석한 뒤 노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했다.

지난 6일 봉하마을을 찾았던 이재명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노무현 정신’ 계승을 다짐했다. 이 지사는 균형발전과 국민통합, 반칙과 특권이 없는 공정한 세상 등 노 전 대통령의 정치 철학과 가치를 언급한 뒤 “당신께서 떠나신 후 새로 태어난 수많은 노무현들 중 하나로서, 과거이자 미래인 당신의 꿈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 힘 다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 전 대표는 추도식 후 기자들과 만나 “노 전 대통령 앞에 서면 항상 부끄럽고 작아지는 것을 느낀다”면서 “대통령께서 남긴 숙제를 우리가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가 반성한다”고 말했다. 그는 노 전 대통령의 유지 중 강조하고 싶은 것으로 “균형발전”을 꼽았다. 검찰·언론 개혁 문제에는 “당도 고민하고 논의하고 있으니 지혜로운 결론이 나올 것”이라고 했다.

특히, 이낙연 전 대표는 추도식 전에 노 전 대통령 사저를 방문, 권 여사와 박 변호사, 김경수 경남지사,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 등과 만났다. 이 자리에서 이 전 대표는 “남부권 발전이 균형 발전의 핵심으로, 김경수 지사와 협력해 나가겠다”며 부산과 목포 간 KTX 신설 필요성을 언급했다.

정세균 전 총리는 추도식 후 기자들과 만나 “노 전 대통령이 그렇게 원하던 공수처도 출범했고, 부족하지만 국정원, 검찰 개혁 등이 이뤄진 것은 성과”라면서 “미진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완수하는 것이 앞으로의 과제”라고 말했다. 정 전 총리는 페이스북 글을 통해 “당신을 정치적으로 타살한 세력이 반칙과 특권으로 보호하려고 한다. 정치 검찰의 검찰 정치, 대한민국의 검찰 공화국 전락을 내버려 두지 않겠다”며 “반칙을 단죄하는 일이 원칙이고 특권을 깨뜨리는 일이 공정”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분향주 주변에는 정치권 등 각계각층에서 보낸 조화가 자리를 채웠다. 18대 대선 후 처리된 서거 8주년 기념식에서 “현직 대통령으로서 자리에 참석하는 것은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했던 문재인 대통령은 조화로 추모를 대신했다. 추도식은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준수하고자 참석 대상을 최소화하고,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에 준하는 수준으로 방역을 유지했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kwangju.co.kr



권양숙 여사 등 참석자들이 23일 오전 경남 김해시 진영읍 봉하마을에서 엄수된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2주기 추도식에서 추도식을 가행하고 있다. /연합뉴스

## 국민의힘 “우리 사회에 노 전 대통령 통합과 실용정신 절실”

국민의힘 등 야권은 23일 고 노무현 전 대통령 12주기인 23일 “노 전 대통령의 통합과 실용정신을 새겨본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강민국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노 전 대통령은 우리 사회의 분열과 갈등을 해소해 국민을 통합하는 것을 일생의 과제로 생각했다”며 “불공정, 불평등으로 국민이 갈라진 오늘, 국민통합이야말로 가장 절실한 가치”라고 했다.

안병길 대변인은 논평에서 “여권이 지금과 같은 일방통행식 국정운영과 입법 폭주를 멈추지 않는다면 국민통합은 요원해질 것”이라며 “소통과 통합의 정치를 복원하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당권 주자인 나경원 전 의원과 대권 주자인 유승민 전 의원은 노 전 대통령의 실용정신과 국익 외교 등을 상기했다. 나 전 의원은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 “노 전 대통령은 이라크전 파병, 한미 FTA라는 업적을 내고 퇴임했다”며 “때로는 지지층의 반발도 무던히 견디면서 소신껏 정책을 펴기도 했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노 전 대통령의 공과를 명확히 인식하고, 계승할 것은 계승하는 열린 정당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적었다.

유 전 의원은 “노 전 대통령은 국가 이익을 위해 서러한 지지자들의 비판을 무릅쓰고 진영을 뛰어넘는 용기를 보여줬다”면서 “그분이 살아계셨다

면 거지와 위선이 판치는 현 정권의 모습에 크게 실망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유 전 의원은 “노무현 정신을 진정으로 생각한다면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 인사들은 자신들의 행적을 부끄러워하고 반성해야 할 것”이라며 “우리 정치가 노무현 정신을 올바르게 기억하길 바란다”고 부연했다.

국민의당 안혜진 대변인은 “그 어느 때보다 불공정이 가득한 시대인지라 위선과는 거리가 멀었던 노 전 대통령이 그리웠다”며 “반칙과 특권 없는 세상에 헌신한 노 전 대통령의 가치가 작금의 어려움을 이겨내는 초석이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 민주당 대권구도 8+α 윤곽...주자 5~6명, ‘빅3’ 아성에 도전

내달말 컷오프 후보 6명 압축

‘반이재명’ 후보간 합종연횡 주목

더불어민주당 대권구도가 8~9명이 나서는 것으로 좁혀지는 분위기다. 일단,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이낙연 전 대표, 정세균 전 총리가 ‘빅3’를 형성한 가운데 박용진 의원과 양승조 충남지사가 출마를 선언했다. 또 이광재 의원이 오는 27일 대권 도전을 선언한다. 김두관 의원의 사실상 대권 도전을 공식화한 상태로, 늦어도 내달에는 출마를 선언할 것으로 관측된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도 출마 쪽에 무게를 두

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문순 강원지사 역시 출마 여부를 두고 장고를 거듭하고 있다.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도 고심이 깊어지고 있으나 주변에서는 불출마 쪽으로 기울었다는 전망이 나온다.

반면, 잠재적 주자로 분류됐던 김경수 경남지사,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거듭 불출마 의지를 피력하고 있다. 결국 5~6명의 주자가 ‘빅3’ 아성에 도전하는 구도인 셈이다.

전반적인 여론 구도는 이재명 지사의 독주구도지만 추격그룹의 연합전선이 변수다. ‘이재명 대 반이재명’ 구도가 만들어진다면 판세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당헌·당규에 따라 6월말로

예상되는 예비경선(컷오프)이 합종연횡의 첫 계기가 될 가능성이 있다. 컷오프로 6명의 후보로 압축되면 유의미한 연대가 이뤄지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이미 주요 이슈를 중심으로 이재명 지사를 협공하는 흐름이다. 이광재 의원과 김두관 의원은 각각 ‘참여소득’, ‘기본자산제’ 구상을 제시하며 이재명표 기본소득과 차별화하고 있다.

친문계에서 먼저 꺼내들었던 ‘경선 연기론’과 관련해서도 김두관 박용진 이광재 의원이 긍정적인 입장을 내비친 바 있다. 경선 흥행이라는 측면에서도 대등한 구도를 만들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kwangju.co.kr

## “노무현 정신 잇겠다”...이용섭 시장·김영록 지사 추모 메시지

이용섭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지사가 23일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2주기를 맞아 추모 메시지를 냈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이날 노 전 대통령 추모성명을 내고 “노무현 정신은 여전히 오월 광주에서 살아 숨 쉬고 있다”고 논평했다. 이 시장은 “그토록 바라왔던 반칙과 특권 없는 사회, 상식과 원칙이 통하는 사람 사는 세상”이 바로 오월 광주가 실현하려고 했던 세상”이라며 “광주 정신을 더욱 세게, 미래로 확산시켜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이 시장은 참여정부 당시 국제시장, 대통령 비서실 혁신관리 수석비서관, 행정자치부 장관, 건설교통부 장관을 역임했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이날 아침 일찍 봉하마을을

찾아 추모식 전에 노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하고, 방명록에 “민주번영과 평화통일의 숭고한 뜻 받들겠습니다”라고 적었다. 이어 사저를 방문해 권양숙 여사를 예방, “노 대통령의 정신을 받들어 사람 사는 세상을 만드는데 밑알이 되겠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추모 메시지를 통해 “노 대통령은 지역 구도를 깨뜨리고 고루 잘사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전력을 다했다”며 “국민을 진정으로 섬겼던 노 대통령처럼 도민을 제1로 섬기며 ‘더 새로운, 더 행복한 으뜸 전남’을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제 제201210-중-116878호 단, 환자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 튼튼한 '척추' 튼튼한 '관절'

바른자세, 꾸준한 운동, 세심한 관리로  
튼튼한 '인생' 튼튼하게 '즐기세요'

척추 무릎 어깨

튼튼한 척추 튼튼한 관절  
첨단우리병원

대표전화 | 062) 970-6000  
전화로 MRI를 미리 예약을 하시면 1~2시간 이내에 진단 및 치료가 가능!

## 모던 슬라브옥상 칼라강판 지붕공사 및 스틸방수

아파트, 빌라, 원룸, 주택, 상가건물, 대형빌딩 등(슬라브 옥상) 시공

**옥상지붕공사**

슬라브 주택, 데스리 및 한옥 등은  
칼라강판 지붕공사

**옥상 스틸방수**

갈라지고 물이 새는 옥상바닥  
겨울의 차가운 냉기! 여름의 뜨거운 열기!  
방수와 단열 한번에 해결!

**옥상지붕공사 및 스틸방수 무료견적** 디자인 등록 제30-0934833호 제30-0949873호

**광주·전남 같이 하실 분 모십니다.**

**모던건설 (트윈스틸)** 시공 문의 **062)531-3530, H .010-9229-3530**